월정사, '세계 청소년 명상 페스티벌' 대면 개최

8월 2~4일 오대산 일원서 진행…'MeMe' 주제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사단법인 문수청소년회(이사장 해공)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월정사, 자연명상마을, 박물관 등 오대산 일원에서 '세계 청소년 명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MeMe(Meditation for Mindful Teens)'를 주제로 한 이번 페스티벌에는 8월 12일 세계청소년의날을 맞아 국내외 청소년 300여 명이 참여한다. 월정사 측은 행사기간 중 연인원 1만5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청소년 명상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비대면 병행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대외 활동을 중단했던 청소년에게 심리적 위로와 안정, 자아실현을 위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2세계청소년명상페스티벌은 지난해 열린 '강원도세계청소년명상주간'을 기반으로 올해는 국제행사로 준비되고 있다.

국내외 청소년 300여 명 참가
연 참가인원 1만 5000명 예상
다양한 명상 · 강연 진행 눈길

특히 청소년들이 가볍게 체험할 수 있는 명상프로그램으로 전통적인 좌선명상을 포함하여 차(茶)명상, 음식명상, 걷기명상, 요가명상 등 다양한 명상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강연프로그램으로는 진종오 올림픽사격금메달리스트 등 스포츠스타를 초대해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의 집중과 몰입의 경험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를 초대하여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명상, 자존감과 리더십 향상 등에 대해 강연을 듣는 시간도 열린다.



2021년 열린 명상 페스티벌 발표자.

각종 명상체험부스 운영, 물놀이 한마당, 국내 유명 뮤지션들이 초대되는 축하콘서트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전국의 중 · 고생에 해당하는 14-19세의 청소년은 누구나 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bit.ly/memefe2022)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행사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문수청소년회 상임이사 월엄 스님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방안으로 명상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명상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 자체가 명상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다"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명상의 경험을 전해줄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더욱 몰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청소년 명상 페스티벌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명상 경험을 통해 '몰입하는 힘'을 자연스럽게 개발하고, '리더십'을 갖추는 데 필요한 공감력과 회복탄력성, 통찰력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강연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박 3일간의 청소년 캠프다.

(사)한국불교조계종 수륙천도 영산대재

6월 17일 밀양 삼봉사서… 제36차 월례회의도 개최


한국불교조계종은 6월 17일 밀양 삼봉사에서 수륙천도 영산대재를 개최했다.

한국불교조계종 밀양 삼봉사(총무원장 녹원)는 6월 17일 밀양 삼봉사 대웅전에서 세계인류평화 국태민안 기원 수륙천도 영산대재 및 제36차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신해사 회주 무공 스님, 삼봉사 회주 녹원 스님, 약사포교원 각성 스님, 환국선원 도일 스님, 금룡사 금화 스님, 사천왕사 대풍 스님, 반월사 원선 스님, 해원사 여명 스님, 지장암 정공 스님, 쌍봉암 진여 스님, 부국선원 부자 스님, 성불사 해봉 스님 외 한불종 종단 스님, 한불종 윤기순 법인대표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윤기순 법인대표의 사회로 명종,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경과보고, 인사말씀(무공 스님), 봉행사(총무원장 녹원 스님), 수륙영산대재(영봉, 해진 스님 등 6명), 사홍서원, 공지사항, 폐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신해사 회주 무공 스님은 "우리 모두는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과 증오심이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전쟁의 참화가 재현되고 있다"면서 "우리 불자들은 마음의 복전을 일구어 지혜와 덕화를 호지하여 다시 희망이 꽃피고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일상으로 복귀하자"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동국대 WISE캠퍼스 완전 대면 법회 재개

덕문 스님 자비 주제 설법

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이 2년 6개월 만에 교직원 법회를 완전 대면 법회로 봉행했다.

6월 16일 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에서 열린 교직원 종강법회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200여 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완전 대면 법회로 진행됐다.

법상에 오른 덕문 스님〈사진〉은 '코로나 시대에 불자의 자세, 자비사상'을 법제로 법문을 설했다.

덕문 스님은 "코로나 시대에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증가하는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주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불자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삶의 방향은 △행복 △건강 △경제적 자유 △부처님을 생각하는 염불 △베푸는 삶을 바탕으로 자비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설법했다.

신성민 기자



정토사 덕진 스님 첫 선서화전 열어

6월18일 울산 중구문화의전당
전시실서 개최…400명 운집
10여 년 전부터 서화 그려와
어린이·청소년 포교원력 담아
덕진 스님 "불교 대중화 일환"


선서화전에 참석한 스님들이 덕진 스님의 그림을 살펴보고 있다.

울산 정토사(회주 덕진)는 6월 18일 울산시 중구문화의전당 1층 전시실에서 〈부처님과 내 마음 그리기〉 출판기념회 및 선화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 울산불교사암연합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 양산 통도사 자비원 이사 문수원 수암 스님, 진해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 태고종 울산종무원장 대활 스님, 여여선원 효암 스님, 성불사 혜안 스님, 벽암사 문성 스님, 이병호 울산신도회장, 전기택 정토사 신도회장, 박금주 총동문회장, 송철호 울산시장, 노옥희 교육감, 박대환 중구청장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덕진 스님의 첫 선서화전으로 식전공연(행원합창단의 우리는 좋은 인연과 정토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음성공양), 개회사, 테이프커팅, 국민의례, 내빈소개, 부채 및 발우 전달식, 격려사(사암연합회장 산옹 스님), 축사, 작품 평(수암 스님), 감사장 전달(허만욱 교수, 김주환 사장), 작가의 말(덕진 스님), 축하공연(어울림합창단, 테너 박준홍, 임찬우), 폐회 및 전시관람(작가설명),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덕진 스님은 "50년간 수행 정진하며 대중이 불교를 쉽게 알고 신행하는 우리 말의식을 보급해 왔다. 10여 년 전부터는 민화와 한국화, 선서화를 익혀왔다"며 "전시된 선서화는 일반적인 그림 그리기가 아닌 수행 방편에서 탄생된 것으로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 공덕을 회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불교사암연합회장 백양사 산옹 스님은 격려사에서 "울산불교와 불자들을 위해 하루도 쉼 없이 정진하는 덕진 스님이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며 "그림 속 천진난만함에 불법승 삼보가 담겨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불법을 심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고 평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장애인 초청 마당 개최

코로나로 지친 장애인들 격려

전북 진안지역에서 자비나눔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쌍봉사가 지역 장애인들을 초정해 잔치 한마당을 열었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와 쌍봉사 섬김봉사단(단장 양행금), 만복의 소리 합창단(회장 김진옥)은 6월 17일 쌍봉사 앞마당에서 지역 장애인 130여 명을 초청해 '사랑 나눔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안군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 장애인들과 사회복지사, 쌍봉사 섬김봉사단, 만복의 소리 합창단 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서는 경기민요전수자 조명옥 명창의 국악공연과 쌍봉사 만복의소리 합창단과 장애인복지관 노래교실을 지도하고 있는 가수 서윤 씨의 공연, 각설이의 해학이 담긴 사회가 진행됐다.

또 쌍봉사 보경 스님과 불자들, 섬김봉사단, 만복의소리 봉사단이 정성 담긴 음식을 나누며 장애인들의 고충과 사회복지사의 노고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예전부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해왔다. 그동안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오늘을 계기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 쌍봉사는 찾아가는 마을 밥상,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쌍봉사 보경 스님이 무대에서 함께 공연을 하고 있다.



